

단 원 15

요한복음 15장

이 단원에서 공부할 내용
예수는 참 포도나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예수는 참 포도나무

요한복음 15 : 1~17을 읽으시오.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에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가지
에 비유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서 그의 생명은 때때로 영적 열
매라고 부르는 것을 만드십니다.
이것은 정원사이신 하나님이 우
리 속에 찾으시는 열매의 종류
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갈라디
아서 5 : 22~23)



정원사는 종종 가지를 치거나 덩쿨을 손질합니다. 그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가 맺도록 손질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의 말씀에 의해 정결케 되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기심, 자만, 나쁜 성질과 같은 것을 자르는 가위로서 성경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것을 믿으며 우리 삶의 표본으로 받아 들이면 성령님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잘라 내도록 도와 주십니다. 그러면 가지의 관으로부터 흘러 나오는 수액과 같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삶이 신속한 영적인 성장을 가져다 주고 영의 열매를 만

들게 할 것입니다.

“거하라”는 단어가 이 장에 여러번 반복되고 있습니다(4, 5, 6, 7, 9, 10 절)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덩굴이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다면 관으로 부터 나오게 되므로 곧 죽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생명도 예수그리스도와 함께 하는데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안에 머무르는 한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로부터 떠나서 죄로 돌아가면 우리는 더 이상 생명을 가질 수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안에, 내가 저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 : 5)



이 단원에서 우리는 믿는 자와 예수님의 사이에는 사랑하는 관계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13장에서 17장 사이에서 13번이나 사용이 됩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말하고 나서 그가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의 사랑 안에서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안에 있으면 그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도와 주실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을 사랑할 것이라고 말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할 만큼 충분한 사람이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 하셔서 우리가 죄인일때 우리를 위해 돌아 가셨습니다. 그는 세상이 그의 생명과 그의 사랑을 알도록 하는데 우리를 선택 하셨습니다.



연구과제

- 1 갈라디아서 5:22~23과 요한복음 15:5을 암기하십시오.
- 2 예수님은 그 자신과 그의 제자들을 각각 무엇에 비유하셨나?
 - a) 농장과 열매
 - b) 포도나무와 가지
 - c) 주인과 노예
- 3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나?
 - a)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우리를 정결케 한다.
 - b) 우리가 그것을 읽으면 우리의 삶이 자동적으로 정결케 된다.
 - c)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 4 예수님없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a) 그가 행하신 것보다 더 위대한 일
 - b) 더 많은 열매를 낳는다.
 - c) 아무것도 할 수 없다.
- 5 믿는자와 예수님 사이에 관계는 무엇에 근거해 있나?
 - a) 사랑
 - b) 교회 구성원
 - c) 선한 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요한복음 15 : 18~27과 16 : 1~4을 읽으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겪어야 할 박해와 오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들을 이야기한 11명의 제자들 중 10명은 복음을 전파하다 죽게 될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자연사에 의해 죽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미워합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미움을 받았던 것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훌륭한 생활은 그의 주위에 죄가 많은 것을 나타나게 합니다. 그것은 죄인들이 죄를 느끼게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을 싫어하게 하고 그들은 그리스도인에 반대하는 일들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적인 사탄은 그리스도인에 대항하여 싸웁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동요시켜서 그리스도인을 조롱하고 그들을 나쁘게 대하게 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당신을 조롱하거나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박해를 할지라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몇몇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가족들에게 멸시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갇힌적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세주로 받아 들임으로써 죽음을 당한 일조차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따르는 자들은 그가 계시는 것이 더 낫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그를 박해하고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박해할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은 보혜사 즉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은 말씀을 하시고 또한 제자들이 예수님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도울것입니다.



연구과제

- 6 박해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 7 예수님께서 보혜사에 관한 어떤 약속을 다시 하셨나?
 - a) 그는 그들을 도와줄 친구를 약속하셨다.
 - b) 포도나무로 부터 열매를 줄 농부를 약속 하셨다.
 - c) 성령님을 그들에게 약속하셨다.



정 답

2 b) 포도나무와 가지

5 a) 사랑

3 a) 우리가 그것을 받아 들이고 순종하면 우리를 정결케 한다.

7 c) 성령님을 그들에게 약속하셨다.

4 c) 아무것도 할 수 없다.

